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7차 세션: 마태복음서의 제자도

Ted Hildebrandt 박사의 글

A. 소개 및 제자의 이해 [00:00-3:03]

[A = 결합 단편 영상: AC; 00:00-8:07] 제자의 이해

환영합니다. 오늘 다시 마태복음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마태복음이 체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가 흠은 것들을 모으고, 담론을 취하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폭발시켰지만, 마가복음의 작품은 그것을 축소하고 더 작게 묘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체계적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 또는 제자도라고 불렀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야기된 명령을 받아들여 이런 종류의 핵심으로 마음에 주입하신 새로운 의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새로운 의로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살인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분노의 관점에서 마음의 문제입니다. 전에는 간음의 관점이었고, 지금은 눈의 정욕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취하여, 마치 선생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의로움으로 그것을 마음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마치 두 번째 모세와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 우선 사도들의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유와 마가복음의 이해라는 서로 다른 것들을 비교해 보면 꽤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밀의 지식은 너희 사도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사도들은 이해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해는 너희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이해 부족을 꾸짖으셨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에게는 이해력이 주어졌다 .”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이해력이 없는 것과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이해력을 가진 것의 차이가 흥미롭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것이 여기 다음에서 보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마가는 “너희 눈은 보는 것이 복이요, 너희 귀는 듣는 것이 복이니라. 많은 선지자가 보고자 하였으나 너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마태와 함께 작업하고 있으며 마태와 마가를 구별하고 있을 뿐입니다.

B.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의 이해 [3:03-5:40]

이제 흥미로운 점은 배와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하고 마태복음이 마가복음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나서 “음, 이건 어떤 주제인가 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왜 마가복음에서 말한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꾸었을까요? 그들이 배를 타고 왔을 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빵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배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며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배에 타셨을 때, 그들은 모든 빵과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누룩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잠깐 돌아가서, 우리는 다시 배 장면으로 갑니다. 누룩과 배에 대한 마가복음의 같은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시면서,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마가복음 8:21)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6:12를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경고 후에,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제자들을 이해한다고 묘사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묘사되는 방식이 여기서는 흥미롭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꾸짖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빼고, 대신 예수께서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효과적인 교사로 묘사됩니다. 마태는 예수를 효과적인 교사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제자들에게 이해시켰는데, 그리스도는 효과적인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 때문에 이해했지만, 마가는 주제의 교훈적인 측면을 그렇게 많이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종의 선행을 보여주는데, 마태는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이해력을 얻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두 가지가 어떻게 분리되는지가 흥미롭습니다.

C. 이러한 이해의 차이를 조정하기 [5:40-8:07]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맞출까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물 위를 걷는 사건은 “그가 배에 오르시자 그들은 완전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6:50이 있습니다. 그들은 빵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배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며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은 이해하고 그가
 배에 오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들이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 이해에서 대조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한 경고는 방금 언급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한 경고, 바리새인 이야기는 꾸지람으로 끝납니다. "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것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반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경고 후에 "그제야 그들은
 예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효과적인 선생님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평행 구절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이 올리고 *피스토이*를
 추구합니다. *올리고*,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해서 *올리고*가
과두 정치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과두정치가 뭔데요?

군주정이 뭔데요? 군주정은 한 사람의 통치입니다. 과두정치는 소수 또는
 다수의 통치입니다. 과두정치 - 소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수이고, *피스토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들이
 믿음이 적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들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들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태가 제자들을 질책한 것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여러 구절에서 이 점을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토론을 아시고, ‘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왜 빵이 없다고 서로 이야기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제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해력이 있고 그런 종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마태는 믿음의 수준에 초점을 맞춥니다.

D. 제자도의 대가 - 디트리히 본회퍼 [8:07- 11:29]

[B = 결합 단편 영상: DF; 8:07-20:11]

제자도의 비용 1부

이제 우리는 이 제자도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드렸고, 제자도의 한 측면으로서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지적하는지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드렸지만, 그들은 이해합니다. 이제 제자도의 비용이라는 주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자도의 비용”이라는 문구를 언급하자마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글썄요,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것은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 대전 무렵에 그는 *제자도의*

*비용*이라는 책을 썼고, 출판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디트리히 본회퍼는 1930년대에 히틀러가 부상했을 때 독일에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부상했을 때 그는 실제로 젊은 시절 신학자였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는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미국으로 와서 뉴욕시에서 미국에서 공부했고 실제로 흑인 교회에 다녔으며 "Swing Low, Sweet Chariot"과 흑인 커뮤니티와 그들의 영성, 그리고 그들의 신앙 표현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독일로 돌아와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정부에서 승인한 신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히틀러가 부상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기본적으로 신학교를 폐쇄했고 그래서 그는 다시 런던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 제 생각에는 1940년대였습니다 - 그리고 그가 미국에 왔을 때, 이번에는 독일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독일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독일을 떠나면 독일 국민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우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미국으로 왔지만, 그는 다시 배를 타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갔고, 그와 몇몇 다른 사람들은 아돌프 히틀러의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화주의자가 그런 진짜 악에 직면했을 때 다가와서 "

알다시피, 지금 다른 뺨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뭔가를 해야 해. 이 녀석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정말 나쁘고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돌프 히틀러의 암살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투옥되었고, 연합군이 들어와 독일을 해방하기 약 2주 전에, 해방되기 약 2주 전에 그는 옷을 벗고 끌려나와 독일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단 2주였습니다. 그가 살아남았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삶에 대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디트리히 본회퍼가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 쓰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로 선택했고,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 제자도의 대가 - 오늘날의 박해 [11:29- 16:54]

이 시대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우리는 초기--폭스의 순교자 책과 초기 교회에서 박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다른 것들, 특히 1세기 이후--1세기가 아니라 로마 관리들이 있었던 2세기에요. 1세기에는 주로 지역적인 박해였고, 사람들은 황제와 다른 것들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려고 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서기 44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구타당하고 온갖 추악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고, 죽은 채로 버려지고, 그런 종류의 일들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

교회에서 박해의 위대한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다른 어느 세기보다 더 많은 순교자가 죽은 것은 언제였습니까? 교회가 시작된 지 2천 년 동안, 기독교 순교자로 가장 유명한 세기는 언제였습니까?”라고

물읍니다. 그리고 답은 1세기나 2세기가 아닙니다. 답은 20세기입니다. 20

세기와 21세기에 죽은 기독교인은 교회의 모든 세기 동안 죽은 기독교인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이지리아를 보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북부에는 기독교인을 죽이는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고, 마을을 파괴하고,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1년 전이나 2년 전 이라크에서 기독교인이

이라크에 2천 년 동안 있었던 때입니다. 제 말은, 그리스도가 죽은 직후에 교회가 그곳에 퍼졌고, 기독교 교회는 이라크에 2천 년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담 후세인을 점령하고 물리쳤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라크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그다드에는 기독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68명 있습니다. 그들은 정면을 바라보고 기독교 교회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기관총을 들고 뒤에서 들어와 6

8명을 죽였습니다. 등을 쏘고, 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무고한 사람들, 무기도 없고, 스스로를 방어할 방법도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언론에 이게 어디 있었지? 어디에 있었지?”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의 미디어 스토리였고, 그 후 사라졌습니다. 저는 심지어 수업 시간에 “누구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열린 예배에서 68명의 기독교인이 뒤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 수업 시간에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 사람이 “그들이 무슨 짓을 해서 그런 일을 당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총에 맞고, 무력하게 총에 맞았습니다. 나이지리아.

남부 수단과 그런 것들은 어때요? 제 말은, 무아마르 카다피는 지금 권좌에서 물러났고, 무아마르 카다피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리비아는 - 그는 무슬림들에게 돈을 주고 아프리카 북부에서 기독교인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독교인이 죽고, 기독교인이 죽고 - 세상은 그저 눈을 깜빡이며 감고 변명을 하며 “음, 미친 사람이 저지른 짓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오, 아랍의 봄, 2011년의 멋진 아랍의 봄, 그리고

당신은 질문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은 스스로를 해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바라크가 이집트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말합니다, 콥트 교회는 어떻게 되었나요? 콥트 교회는 2천 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고, 그들은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아랍의 봄의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대한 자유의 시기와 기독교인은 죽어가고 있고, 모두가 마침내 민주주의를 얻었고 민주주의가 기독교인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가 뭐라고 합니까? 모두 침묵합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도의 대가가 매우 현실적이며,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 제 생각에는 전에 본 적이 없는 박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서는 상황이 급증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상황이 점점 더 호전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죽이거나 더 나쁜 경우,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메시지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기독교인을 억압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대규모 운동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부가 “글쎄요,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없고,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저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도의 비용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도의 비용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해 작업하고 싶습니다.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에서 그 소녀를 기억하십니까? 한 소년이 와서 자신의 반 아이들을 죽이고 있었고, 그 소년이 그 소녀에게 총을 겨누고 “당신은 기독교인이예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겨 그녀의 머리에 총을 쏘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간증인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기독교인이예요?”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네.”라고 말했고 그 순간 죽었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그것은 콜로라도에서 일어난 미국의 일이었습니다.

마. 제자도의 대가 - 평화가 아니라 칼 [16:54-20:11]

제자도의 비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몇 개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10장에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보내실 때입니다. 그는 열두 제자에게 그들이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아버지와, 딸을 어머니와 대적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다른 복음서 중 하나의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이 구절도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요, 칼을 주러 왔노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요, 칼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여러분은 “기독교가 칼의 종교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글쎄요, 그렇죠. 예수께서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세요, 기독교도 폭력적인 종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맥락이 뭐죠? 그는 제자들에게 칼을 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겐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을 때, 예수께서는 “칼을 차라. 칼로 사는 자는 칼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아, 너희가 나가면 칼이 너희에게 사용될 것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칼이 여러분에게 사용될 것입니다. 칼을 잡으라는 부름이 아니라, 칼이 - 그 죽음이 - 무엇의 운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대가, 제자도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에게 흥미로운 점은, 열두 사도가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고 목을 매달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되어 순교자로 죽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흥미로운 점은 열두 사도가 모두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요한은 90년대까지 살았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순교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에 대한 무언가를 말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서 숨었지만, 부활 후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의 진실성에 대한 흥미로운 증거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전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믿는 바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위해 죽었습니다. 열두 명 다 죽게 되면, 그들이 예수에 대한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그들 중 한 명이 “이봐, 우리가 그냥 만들어 낸 거야. 괜찮아, 나를 죽일 필요는 없어. 다 만들어 낸 거니까.”라고 말할 거라고 기대할 겁니다. 아니, 아니, 아니.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선포하고 죽음으로 갔습니다.

G. 비용 - 애착을 버리는 것 [20:11-23:56]

[C = 결합 단편 영상: GH; 20:11-27:13]

제자도의 비용 2부

그럼, 좋아요, 여기서 제자도의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고, 우리는 디트리히 본회퍼에 대해 이야기했고, 진정한 제자는 거부, 박해, 증오를 겪을 것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다음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아버지에게 대적하게 하려 함이요, 딸을 어머니에게 대적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일종의 종교적인 것으로 보지만, 십자가는 잔인한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 나를 따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니라.”

이제, 여기서 제자도의 대가로 애착을 버리거나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고 싶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직접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믿으십시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살인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킨 것처럼 보이는 이 청년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음 단계로 밀어붙이시며, “만일 네가 온전하고자 하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즉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데, 저는 바늘구멍이 실제 바늘구멍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음, 낙타가 모든 물건을 내리기 위해 통과해야 했던 문이었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제게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바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저 이 엄청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신 없이는 부자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초기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를 지지한 부유한 사람들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 보라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가 분명히 이 젊은이에게 발톱을 박았고 예수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H. 비용 - 자신을 부정하고 잃어버림 [23:56-27:13]

이제,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은 제자도의 대가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한 구절에서 나오는데,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기독교를 위한 희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저는 때때로 미국에서 보는 문화적 기독교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삶의 목적이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신이 얼굴에 큰 미소를 띠고

항상 행복할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잠깐만요,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통을 겪고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물이 “건강과 부”와 같은 복음으로 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 예수를 따르면 그가 당신의 삶을 만들어 줄 것이고 모든 것이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 어떤 깊은 의미에서 - 예, 삶에 더 많은 목적과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이 있지만,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이 큰 상실과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며, 예수의 길은 슬픔의 길입니다. 예수는 “슬픔의 사람이요 슬픔을 아는 자”입니다. 기독교 서점이나 웃는 예수 같은 곳에 있지 않는 한 그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루살렘을 두고 울부짖으시고, 예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문화에서 묘사되는 행복하고 항상 행복한 종류의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 토마스 아 켐피스가 쓴 책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를 본받고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의 발자취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잃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힘든 메시지입니다. 제자로서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 그리고 예수를 따른 제자들은 그들의 삶, 가족, 그리고 온갖 것들로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종류의 것들을 알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습니다.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걷습니다. 그가 십자가로 가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I. 참 제자와 거짓 제자 [27:13-32:18]

[D = 결합된 짧은 영상: IK; 20:11-39:46]

T/F 제자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요점은 제자도의 비용입니다. 우리는 참된 의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해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는 선생님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도의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거짓 사도와 제자에 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분명히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매우 통렬한 방식으로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나가서 땅에 좋은 밀을 뿌립니다. 그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정원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종들이 가라지가 밀과 섞인 것을 보고 “가라지를 제거해야 합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아니, 추수 때까지 밀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어라”고 말합니다. 추수 때, 그는 추수꾼을 보낼 것이고, 추수꾼은 밀과 가라지를 갈라낼 것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버릴 것입니다. 분명히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가라지는 불타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자라고, 밀과 가라지는 함께 자랍니다. 밀은 자라서 약 60, 100 개의 이삭을 수확합니다. 가라지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해서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교회에 혼합이 있다는 비유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답은 아니요, 혼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그것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믿음인가 행위인가? 이것은 제기되는 큰 질문입니다. 믿음인가 행위인가?

이제,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산상 수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인 산상 수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절대적으로 무서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우리는 지금 화재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세요 :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서, 그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 누가 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이 작은 구절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 - 저는 다섯 살 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공식을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작은 공식을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나요? 누가 왕국에 들어가나요? 여기서 그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 이것을 보세요 -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설교자였습니다. 저는 설교자였습니다. 저는 나가서 당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했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밋소사, 우리는 너무 훌륭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기적을 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했을까? 기적, 예언, 설교,

귀신 쫓아내기.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고 말씀하신다.

자기기만의 가능성. 제 생각에, 이것은 자기기만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줍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니요,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기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한 번 말했듯이, 저는 레이커스 저지를 사서 레이커스 저지를 입으면, 제가 레이커스 농구 선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시다시피, 제가 차고에서 오래 산다면, 제가 차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하므로 이 일 중 어떤 일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ㄷ. 참 제자와 거짓 제자 -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 [32:18-35:38]

그러니까,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제자가 있는데, 이것도 정말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과 염소이고, 이것은 최후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맥락에서, 아버지는 양과 염소를 분리하실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쪽에 있는 염소 말입니다. 그는 어떻게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나요? 염소는 잘못된 곳으로 가는 나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근거로 왕국에 들어갈까요? 양은 어떤 근거로 왕국에 들어갈까요?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왕이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염소들입니다 -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를 쫓아내어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사실, 꽤 흥미로운데,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물론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 우리 문화는 죄에 대한 개념을 모두 삭제하고 따라서 그 이후의 모든 결과에 대한 개념도 삭제합니다. 우리는 결국 미국인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맞죠?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악마와 그의 악령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제, 왜? 왜? - “내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낯선

사람이었을 때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 ’ 주님, 언제 당신이 주리거나 목마르거나 낯선 사람이거나 헐벗거나
 병들거나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대답할
 것입니다. ’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작은 형제 자매들
 중에 한 사람을 도우지 아니한 것은 곧 나를 도우지 아니한 것이다.’ ” 그들은
 놀랐습니다. “ 언제 우리가 당신을 보았습니까? 언제 당신이 병들고
 벌거벗은 것을 보고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 이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입니다.’ ” 양에게 가서 그가 양에게 “내 왕국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양은 “음, 우리가 어떻게 여기로 들어올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 이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 자신도 언제 이 사람들을
 도왔는지조차 몰랐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므로 여기서 그런 종류의 역전이
 흥미롭습니다 . 다시 말하지만, 저는 자기기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책은 Scott Peck의 오래된 책인 *People of the Lie*입니다.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여기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에게 하는 거짓말에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변명은 없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 문화는 변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종류의 변명을 해왔고, 예수님은 “아니, 아니. 여기서는 통하지 않아. 네가 한 가지를 생각했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니었고, 지금 현실을 직면해야 하고, 네 결정에는 결과가 따른다. 너는 이중 가장 작은 자를 돕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를 떠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기만의 문제를 제기하는 매우, 매우 강력한 구절입니다.

K. 아버지의 뜻을 행함 -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35:38-39:46]

이제 한 가지 더, 이 주제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자들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오셨고,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 마리아, 야고보, 요셉이 예수님께 다가왔고, 기본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했고, 예수님은 - 마태복음 12장 49절입니다 -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여기에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어머니와 형제와 같은 혈통에서 벗어나 확장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 제자들은 내 것입니다. 이들은 어머니와 형제들입니다.” 라고 확장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그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그의 자매는 누구입니까? “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그는 “오 예, 그냥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게 괜찮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공식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아니요,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제자와 거짓 제자에 대한 이런 종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 이거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 우리는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다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참 제자와의 명확한 구별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세 장에 걸쳐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의를 위하여 온갖 추악한 일을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가르침에서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듣고, 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는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사실 제가 제 자신에게 사용하는 연습은, 꽤 규칙적으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인가?” 저는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기독교인인가?” 그리고 당신은 말합니다, “오, 힐드브란트 박사님, 당신은 이 모든 세월 동안 성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그가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나는 기독교인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물론입니다. 네”가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저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나는 기독교인인가?”라고 진지하게 고려하고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고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 건강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가 스스로 구원을 얻고 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공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요. “아니요. 하지만 기독교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성찰하는 건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아 맞아요, 저는 기독교인이예요. 문제없어요. 저는 레이커스 저지를 입고 있어요, 알겠죠? 레이커스 저지는 제가 레이커스에서 농구를 한다는 걸

의미해요.”라고 말하죠. 아니요. 저지를 입고 있을 뿐,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 조심해야 하고, “저는 기독교인인가요?”라고 묻는 건 건강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L. 예수의 신학 - 위대한 선생님 [39:46-43:58]

[E = 결합된 단편 영상: LM; 43:58-48:18]

모세보다 더 위대한

참 제자와 거짓 제자, 제자도의 비용 - 그것들은 꽤 무거운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제자도에서 주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도의 다양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도의 비용, 제자도에 관련된 의로움, 제자에 대한 이해, 교사로서의 예수, 참 제자와 거짓 제자, 그리고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하고 싶은 것은 예수에 대한 마태의 신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신학과 마태가 예수를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각 복음서 필자는 예수를 다르게 묘사할 것입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는 한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공관복음서” - 한 눈으로, 한 눈으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매우 평행해서 서로에게 매우 상호 의존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불리는 반면, 요한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예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각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서 글을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 말했듯이, 시야 심도를 얻으려면 두 눈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이 여러 복음서에서 예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약 92%가 요한서와 완전히 독특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중복이 있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각각 그리스도를 다르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싶습니다. 저자는 특정한 방식으로 예수를 묘사하고 볼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또 다른 것은 그들이 글을 쓰는 독자층이며, 마가는 로마 독자층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것처럼 보일 것이므로 예수에게서 많은 로마적 주제를 찾을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초기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마태가 아람어로 쓰여졌다고 생각했고, 마태가 원래 아람어로 쓰여진 후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는지, 아니면 원래 그리스어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마가는 독자층 측면에서 로마인이며, 누가는 물론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인물인 데오필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와 사도행전을 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저자 자신과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쓰는 독자층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그러므로 통역자로서 우리는 저자가 누구였는지와 독자층이 누구인지를 모두 고려하여 그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의 관점에서 본 그리스도 신학과 마태는 예수를 어떻게 보고, 그것이 어떻게 독특하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태가 예수를 묘사하는 첫 번째 것 중 하나는 예수가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랍비와 비슷해서 돌아다니며 가르치고, 그래서 그는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12장 42절에서 예수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고대 세계,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혜자였고, 지금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새로운 모세로 묘사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주제, 새로운 모세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현명한 선생님인지 보게 됩니다. 그는 구약의 많은 잠언을 우리에게 전해 준 사람이고 현명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면 솔로몬은 가서 가르쳤습니다. 예수,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이 지금 여기 계시고,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혜의 스승이며, 묘사되고, 심지어 그가 사용하는 형태 중 일부도 있습니다: 행복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 “복이 있나니”라는 공식, 축복 – 행복은 지혜의

형태입니다. 구약시대에 현자들이 사용했던 문학적 형태이므로, 예수는 바로 그것입니다.

M.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크시다 [43:58-48:18]

예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비교하게 됩니다. “너희는 옛날에 들은 바가 있느니라” 그리고 그는 여러 곳에서 구약성경에서 인용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 그는 권위 있는 교사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 위대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정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다섯 권의 책이 있었는데, 오경이라고 불렸습니다. “펜타” - 다섯, “테우흐” - 책, 다섯 권의 책, 토라의 처음 다섯 권, 교훈의 책, 토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다섯 가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상수훈, 열두 제자 파견, 왕국의 비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24장과 25장에 있는 올리브산 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말했듯이, “예수께서 이것을 마치셨을 때...”라는 일반적인 구절로 시작되는 이 다섯 가지 담화를 하였고, 그것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 다섯 가지 주요 담화를 중심으로 그의 책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가 예수의 다섯 가지 설교를 예수와 새로운 모세로

비교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태의 다섯 부분
 , DeSilva가 그의 신약 서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새로운 율법. 모세와 예수
 사이의 유사점은 꽤 흥미롭습니다. 예수와 모세 사이에 의도적이고 의도적인
 유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복음서 중에서 마태만이 헤롯이 베들레헴의 모든 유아를 죽였다고 말하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두 살 이하의 아기들이
 수백, 수천 명이나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 당시에 열두 명 이하의 아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아주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쉽게 들어맞을 것입니다
 . 베들레헴은 여기 고든 칼리지 캠퍼스에 쉽게 들어맞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큰 장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왕이 태어나면서 유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다른 유아들도 죽임을 당했던 걸
 기억하세요? 그들이 아기들을 강에 넣고 히브리 산파들과 함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죽고 모세가
 일어나고, 예수가 아기들이 죽고 예수가 일어서는 거죠 . 그래서 이런 평행이
 생기는데,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그런 평행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고, 모세가 이집트에 있고, 예수가 이집트로

잡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헤롯이 그 아이를 죽이려 할 테니까 이집트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를 챙겨서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실 때는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렀다”는 뜻입니다 .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렀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고, 그의 아들은 이스라엘이었고, 누가 그것을 이끌었을까요? 모세였습니다 .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에서 나왔듯이, 예수도 어린 시절에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런 종류의 새로운 모세입니다.

예수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새로운 모세입니다. 모세와 예수는 모두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받습니다.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언약입니다. 예수는 변형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둘 다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형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형에서 누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먼저 오고 세례자 요한이 올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경우 - 모세는 변형산에 있었고, 예수는 이 새로운 모세와 같고 변형산에서 모세와 토론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 사이에 이런 유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마태복음에서 새로운 모세입니다.

N. 치유자로서의 예수 - 백부장의 종 [48:18-53:15]

[F = 결합 단편 영상: NF; 48:18-60:05]

치유자로서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제, 예수를 바라보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야훼, 여호와와는 치유자로 여겨졌습니다. “아도나이 로페” - 주님, 치유자. 마태는 이것을 다루므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치유자로 봅니다. 예수가 행한 기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적 기적이라고 불리며, 그것은 예수가 실제로 누군가를 치유하고 고칠 때입니다. 그들은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고, 그는 그것을 고칠 때, 그것을 치료적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치료적 기적도 있습니다. 이제 비치료적 기적은 예수가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아무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치료적 치유는 없었습니다. 예수가 물 위를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변형에서 예수는 변형되고 그들 앞에서 변형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기적이지만, 치료적 기적은 아닙니다. 기적에는 치료적 기적과 비치료적 기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치료적 기적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에 몇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온 사람으로, 100명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군단은 보통 6천 명 정도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군단은 꽤 컸습니다. 그런 다음 군단은 여러 수준으로 나뉘었고, 이 사람은 1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백부장이며, 큰 인물입니다. 그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백부장은 보통 부정적입니다. 로마의 지배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그의 하인을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하인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그 하인에게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제 하인을 고쳐 주시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이제 백부장이 - 백부장은 백 명이 넘었습니다 - 하인을 걱정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매우 걱정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인을 위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백부장의 성격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은 “나는 백 명이 넘는 로마 군인을 거느린 강력한 백부장이며 사람들을 날려버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이 백부장은 고통받는 하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의 지위 측면에서 백부장은 예수 아래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 와서 하인을 위해 도움을 구합니다. 즉, 그는 높은 백부장의 말에서 내려와 예수 아래로 내려와 예수께 요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께서 “좋아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집에 들어오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집에 들어오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강력한 사람이지만, 그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집에 들어오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제가 말하면 사람들은 제가 말한 대로 합니다. 네, 저는 그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면 사람들을 죽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사람들은 제 명령을 따릅니다. 저는 그 사람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제가 백부장이라서 그들이 뛰어드는 것일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제 하인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이었을까요? 보통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또는 “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는 백부장에게 돌아섰고 백부장은 말했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내 집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내 집은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는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 이스라엘에서 그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백부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수업에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말씀하시고 일이 일어났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매 만물이 생겨났느니라” - 시편 33:6. 그는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삶의 질병, 삶에서 잘못된 것,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바로잡으시고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에서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0. 예수님은 만지심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여인 [53:15-56:32]

다른 하나는 그가 가는 길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야이로는 죽음 직전인 딸이 있는데, 그녀는 죽을 것이고, 예수께서 그녀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치료적 기적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13장 - 마태복음과 비유, 하지만 8장과 9장 - 마태복음에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군중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모두가 예수님을 밀고 다니고, 그러다 갑자기 예수께서 - 예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 것일까요? 글썄요, 우리는 백부장을 보았는데, 그는 말씀하시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떻게 여러 번 고치시는 것일까요? 만지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그를 밀고, 그는 아이로를 쫓습니다 - 그 사람의 딸이 죽어가고 있고, 그녀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고치기 위해 그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는 군중을 헤치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군중이 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여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봐요, 그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그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나는 고침을 받을 거예요.” 그녀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피를 흘리고 있었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그녀는 군중을 밀치고 그를 만졌고, 갑자기 -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녀는 피를 흘리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깨끗한가요, 아니면 더럽습니까?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레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깨끗한가요, 아니면 더럽습니까? 그녀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럽습니다. 이제, 깨끗함은 어떻게 전달됩니까? 보통 깨끗함과 더러움은 접촉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더럽다면, 예를 들어 나병이 있고, 그 사람이 당신을 만지면, 당신은 저녁까지 더럽혀지고, 당신은 씻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여자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의 옷을 만집니다. 예수님은 더럽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에게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만졌고, 그녀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아니, 당신이 내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고친 것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함께 있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녀를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만져서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졌고 고쳐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 생각에, 만진 것인데, 이건 머리에서 떠오르는 것인데,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고,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병들었고,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녀를 만지고, 손을 잡으시자 열이 내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 예수께서 사람들을 만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은 바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만지셨다는 것 - 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진다는 것은 매우 가까운 일이고, 예수께서 가까이 계시고 사람들을 만지고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치유자라는 치료적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치유자이시고,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 그의 만지심과 말씀으로. 그는 말씀하시고, 그것이 일어납니다.

P. **임마누엘 -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56:32-60:05]

이제 임마누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당신은 보통 어떤 책을 읽을까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이 당신의 집에 와서 “글쎄요, 예수님은 정말 신이시지만, 진짜 신은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신세계 역본 으로 그 모든 것을 떠벌리며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보통 어떤 책을 읽어서 그것을 반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나요? 당신은 보통 요한복음 1:1로 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 예수 -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예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와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그들은 그 구절들에 대한 모든 반박과 그들의 성경에서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당신은 예수의 가르침을 신성으로 생각할 때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루고 싶은 주제 중 하나는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인 임마누엘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마지막에 있는 “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엘”은 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엠마누”는 “우리와 함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은 - “엘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 이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요, 그는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니, 이는 ‘우리와 함께 하는 신’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와 교회 규율의 맥락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은 그의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는 신이라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그런 다음 대명령에서도 같은 내용이 발견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끝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으로 시작하고, 일찍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서 대명령으로 끝납니다. 마태는 이렇게 자신의 책을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 훈련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새로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알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시작 부분,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위대한 진술들이 나옵니다. 이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은 아름답습니다
 . 왜냐하면 그는 제자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는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Q.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 [60:05-65:24]

[G = **결합 단편 영상**: QS; 60:05-74:24]

그리스도의 왕권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싶습니다. 저는 욕기를 읽었는데,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고, 여러분이 고려해 볼 만한 아이디어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무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므로, 저는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실제로 합법적인지 항상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물 위를 걷는

예수입니다. 14장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만약 정말로 당신이시라면, 예수, 저도 당신과 함께 배에서 내리게 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몇 걸음 건다가 파도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물에 빠지고, 예수가 그를 끌어내립니다. 예수가 배에 오르자 제자들은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그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예수가 물 위를 걸으시고, 그들은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제, 어떻게 작동합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 사실 저는 욥기에서 이 부분을 읽었는데, 그냥 흥미로웠어요. 그는 물 위를 걸었고, 그들의 결론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물 위를 걷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넘어갔을까요? 이제 이것을 살펴보세요. 구약성경에서 시편 68편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구름을 탄 자”로 묘사되고, 그것은 일종의 패러디이고 바알 숭배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가나안 종교에서 구름을 탄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아니. 나는 구름을 탄 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는 비를 가져오는 자이다. 비를 내리는 자는 바알이 아니라, 비를 가져오는 자, 구름을 탄 자이다.” 욥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9장 8절: “그분만이 하늘을 펼치신다.” 누가 하늘을 펼치신가요? “그분만이 하늘을 펼치신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하늘을 펼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무엇을 하시나요? “...

그리고 바다의 파도를 밟으십니다.” “그분은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파도를 밟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다의 파도를 밟으시는 것을 보고, “바다의 파도를 밟는 유일한 분은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파도를 밟으십니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제 유대인에 대해 조금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산악 민족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면 오른쪽이나 동쪽에 갈릴리해, 요르단 강,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루살렘 지역에서 약 2,700피트 높이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해는 해발 약 1,300피트 아래에 있으므로 약 3~4,000피트 높이가 있고 지중해로 내려갑니다. 지중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보통 산악 민족입니다. 유대인은 바다를 잘 모릅니다. 그들이 바다, 지중해, 이런 종류의 것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보통 큰 바다를 혼돈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격노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혼돈입니다. 그들은 바다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산, 보호, 아시다시피, 안정을 좋아합니다. 산. 바다는 혼란스럽고 항상 변하고 거품을 내며, 그래서 바다는 종종 혼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얻은 것은 물 위를 걷는 신과 바다를 진정시키는 예수입니다. 혼란은 그의 말씀으로 진정됩니다. 혼란은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는 혼란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는 혼란을 진정시킵니다. 그는 바다의 파도 위를 걸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를

얻고--그저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배 위를 걷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올해는 수업 시간에 몇몇 학생들이 질문을 했지만, 예수가 물 위를 걷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천국의 작은 엿보기인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얻은 것은,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물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당신은 제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장면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왕국이 오면 언젠가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이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받았듯이 온 지구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때가 올 것이고, 베드로와 함께, 당신은 그것에 대해 약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왕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를 다스릴 때 인류의 운명입니다. 더 이상 혼돈이 지배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물 위를 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와 함께 다가올 왕국에 대한 약간의 예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 스스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지만, 그저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그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ㄴ. 그리스도의 왕권 [65:24-69:06]

이제 왕권과 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권이란 무엇인가?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곳이며,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마태복음의 주요 신학적 주제인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지적하는 몇 가지 사항입니다. 족보에서 -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면, 왕에게 족보가 필요한가? 왕에게는 족보가 필요합니다 -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 하지만 왕에게는 족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족보는 누구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가? 데이브 매튜슨은 그의 강의를 들으면 마태복음의 첫 구절에 대해 훌륭하게 언급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족보는 다윗의 아들로써 예수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고 다윗의 왕좌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다윗보다 더 위대한 다윗의 위대한 아들로 오십니다. 그의 아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족보는 다윗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고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퍼뜨리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사무엘을 했을 때, 왕이 만들어졌을 때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왕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사기에서도 같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재판관이 만들어졌을 때, 재판관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나가서 군사적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는 기름부음을받은 왕이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군사적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야베스 글리아드, 사울의 경우. 다윗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부음을 받고, 다윗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그 다음 장인 17장에서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부음을 받고, 그 다음 장에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름부음을 받고, 왕은 큰 승리를 거두고, 그것이 다윗의 왕권과 관련된 골리앗 이야기의 역할이고, 그저 문자적으로 말입니다.

이제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지금 왕이시고 다윗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는 광야로 나갑니다. 그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그의 기름부음입니다. 그는 3장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장에서 예수는 광야로 나가서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을 재연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망쳤지만, 예수는 이제 40일 40야 동안 광야에 가서 예수가 참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합니다. 예수는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합니다. 그것은 사탄에 대한 그의 승리입니다. 예수가 광야로 나갔을 때, 그는 3장에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4장에서 그는 광야로 나가서 사탄을 물리칩니다.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들어올릴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 주며, “엎드려 나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사탄을 세 번이나 반박하셨는데, 사실 신명기 4장부터 11장까지를 인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사용하여 사탄을 반박하셨습니다. 사탄과 그리스도 사이에 매우 흥미로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S. 안식일의 주님이시요 다윗의 아들 [69:06-74:24]

이제 안식일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을 고쳐 줄 수 있는지 보라고 예수님께 요청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님이며, 안식일의 주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예수님입니다. 그는 마태복음에서 9번이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9번이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왕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림 성경에서 예수님을 머리에 왕관을 쓴 험프티 덤프티로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9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그것을 3번만 언급하므로 마태복음은 이

“다윗의 아들”이 있는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보다 3배나 더 많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DVD를 보셨나요? 열네 살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권의 또 다른 측면은 족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여러 왕들의 족보를 살펴보는 흥미로운 진술이 나옵니다. 그는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살펴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이삭의 아버지로, 이삭을 야곱의 아버지로, 야곱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아버지로 시작하여 다양한 것들을 살펴봅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이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의 아버지이고, 르호보암은 아비야의 아버지로 바빌론으로 유배됩니다. 족보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모두 열네 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열네 대이고, “다윗에서 바빌론으로 유배될 때까지 열네 대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 열네 명이었고, 다윗에서 유배까지 -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인들이 첫 번째 성전을 파괴했을 때 - 열네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유배에서 그리스도 시대까지 열네 세대입니다.” 열네, 열네, 열네라는 숫자가 나오면 “글쎄요,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마태복음 1장 8절을 보고 역 대상 3장 11절과 비교해 보면 ’잠깐만요, 마태오, 세 왕의 이름을

빼먹었어요.’라고 말할 거예요.” 세 왕이 빼먹었습니다. 그는 왜 세 왕을 빼먹을까요? 그는 열네, 열네, 열네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세 왕을 빼먹었습니다. 역대상 3장 11절에서 그가 빼먹은 세 왕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왕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들은 왕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지만 그는 세 명을 건너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그것을 14라는 숫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 14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글쎄요, 미국 문화로 돌아가서 - 지금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있는데 - 숫자가 보일 때, 뭐, 12시인데, 우리는 - 숫자 체계와 알파벳 체계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A, B, C, D가 있는데 - 이것들이 우리의 글자이고, 이것들로 단어를 씁니다. 1, 2, 3, 4가 있는데 - 이것이 우리의 숫자 체계입니다. 우리는 별도의 숫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우리의 글자는 숫자와 다르고, 그래서 숫자를 평소에 쓰는 것과 분리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유대인 시대로 돌아가서, 1세기에 그들은 게마트리아라는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저는 그저 이 아이디어에 접근하고 싶을 뿐입니다 - 숫자와 글자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는 1, B는 2, C는 3, D는 4가 되고, 따라서 D는 실제로 히브리어로 4이고, V는 6이고, D는 4입니다. 그리고 DVD는 같다고 말합니다. 4, 6, 4라고 하면 정확히 14가 됩니다. DVD는 이제 “음,

이건 DVD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에요. DVD가 존재하기 2천 년 전이에요.

마태가 DVD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DVD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모음은 나중에 추가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히브리어가 엄격하게 자음이었고, 이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DVD는

누구일까요? 모음을 넣으세요. 누구일까요? 다윗. 다윗, 다윗. 그래서 마태가

하는 일은 마태의 족보를 사용하여 14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14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하고, 아마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그는 열네, 열네, 열네를 하는 것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며, 영원무궁토록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마태가 그리스도의 신학을 묘사하는 방식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천국 [74:24-77:57]

[H = **결합 단편 영상**: TV; 74:24-83:17]

천국의 왕국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는

구절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이제 이 구절을 조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실 때 - 요한이 설교하고 있을 때 - 요한은 무엇을

설교했을까요?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고 설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또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에 대해 - 여러분은 제가 몇 년 전에 함께 가르쳤던 친구인 데이비드 터너의 기사를 읽어 보셨을 겁니다. 데이비드 터너는 *크리스웰 신학 리뷰*에 행복에 대한 훌륭한 기사를 썼습니다. 데이비드는 행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로 시작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행복을 끝내면,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서 행복을 끝낼 때, 행복은 천국의 약속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행복입니다. “인클루시오”라고 하나요? 마치 책의 끝과 같습니다. 행복은 천국의 약속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멋진 일이죠.

이제, 32번 - 마태복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 이 구절, “하늘나라”는 마태복음 32장에서, 마태복음에서 33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의 28장 - 모든 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32번, “하늘나라”가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아차리게 되는 것은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인가 아니면 하늘나라인가? 마태가 계속 하늘나라를 언급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제 방법론은 -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대조하고, 평행 구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평행 구절이고, 그런 다음 단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왜 마태가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그는 단어를 바꾸었을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에 대한 장에 "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한 지식이 너희에게 주어졌느니라"고 말합니다. "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한 지식이 너희에게 주어졌느니라." 글썄요, 마가복음 4

장 11절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데, 마가복음의 천국 비유인데, 거기에는 "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 주어졌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고, 마태복음에는 "

하늘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뀐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약간

의존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마태는 실제로 예수의 제자였으므로 실제로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 당신은 "잠깐만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단어를 바꿀 수 있을까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언어 사이를 이동하고 있으며, 목적이 있습니다

. 예수께서 이러한 우화를 전파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U. 차이점 조정 [77:57-80:47]

고든 칼리지에 그레엄 버드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재즈라는 개념을 소개했고, 저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버드 박사는 연주할 때, 그냥 "징글벨"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그에게는 너무 저속합니다. 그는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징글벨"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고전적인 형태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아노에 앉습니다. 그냥 "Joy to the World"를 연주해 봅시다. 아마 더 나은 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Joy to the World"에 앉아서 피아노로 "Joy to the World"를 고전적인 방식으로 연주합니다. 그는 그것을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처럼 연주하고, 그는 이 모든 작은 것들과 함께 연주합니다. 그래서 "Joy to the World"는 고전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같은 노래인 "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을 가져와서 지금은 가스펠 노래로 연주합니다. 그래서 그는 "Joy to the world..."를 가스펠 교회에서 사람들이 "Joy to the World"를 부를 때 연주하는 것처럼 가스펠 노래로 연주합니다. 그는 그것을 클래식하게 연주하고, 그는 그것을 바꿉니다. 같은 노래인 "Joy to the World"이고 클래식한 형태로도 알아볼 수 있고 가스펠로 연주할 때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잠깐만요, 다르죠, 재즈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같은 노래이지만 그는 그것을 재즈적으로 연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고전적인 맥락에 있었다면 그는 그것을 그렇게 연주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스펠 교회 노래에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연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Joy to the World"의 블루그래스 버전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그는 재즈적인 느낌을 더 많이 냅니다. 완전히 다르게 들리지만,
 그래도 똑같고, 여러분은 그것이 "Joy to the World"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이제 그가 연주하는 세 가지 방법은 모두 "Joy to the World"이지만, 연주
 방식이 다르고 청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지만, 다릅니다.

설교한 사람이라면 -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테네시에서
 순회 설교를 했을 때 테네시에서 가르치면서 다섯 개의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만들어서 한 번, 두 번 설교했는데, 두 번째
 설교할 때는 아내가 항상 첫 번째 설교는 끔찍했지만 두 번째 설교는 훨씬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설교할 때는 아내가 "그게 제일 좋았어"라고
 했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교회에 갔을 때는 "다섯 번째 교회에서는 설교가
 지루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
 매번 설교할 때마다 청중에 따라 같은 설교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설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같은 단어여야 해"라고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다양한 청중에게 글을 쓸 것이고, 다양한 청중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과 신의 왕국이 바뀌었습니다.

V. 하나님의 비유로서의 천국 [80:47-83:17]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들었고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야훼”나 “여호와”라고 부르는 방식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발음하지 않고, *야도나이* 또는 *하셈* 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이고, 모두가 *하셈* 이라고 말할 때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심을 정말 존중합니다. 저는 이런 OMG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 문화에서 약간 역겹게 느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누군가 발가락을 다쳤는데 갑자기 “맙소사”라고 말하고,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말하는 거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학생들 앞에 서서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다쳤을 때 “맙소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같은 교사가 이렇게 “맙소사”라고 말하면 ACLU가 그녀를 쫓을 것이고, 그녀는 고소당하고 직장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하고, 저는 유대인들을 존경합니다. 그럼 매튜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제 어머니가 말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제 어머니는 “신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하늘이 도와주세요. 하늘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녀는 “신이 도와주세요”를 의미했지만 “하늘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회적 표현으로 사용되거나, 환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신을 지칭하는 환유적 표현이나 우회적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청중을 기리기 위해 그는 그것을 “천국”으로 바꾸었고, 유대인 청중 때문에 그것이 그의 방식인 듯합니다. 당신은 청중에 따라 메시지를 조정합니까? 물론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천국”을 사용합니다.

좋아요, 천국입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왔습니다. 그러니 잠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면 천국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Sarah Woodbury가 필사함

Ben Bowdon 편집

Ted Hildebrandt가 편집한 Rough